

## 光日春秋

## 한 해의 끝에 서서

장석주  
시인

임진강에 혼자 나가 일몰의 빛으로 반짝이는 윤슬을 바라보다 돌아왔다. 강물은 유구한 세월을 흘러도 그 흐름을 멈추는 법이 없다. 공자는 강물 앞에서 “강물이여, 강물이여!”라고 탄성을 질렀다. 계절의 순환에는 오차가 없어 동백과 모란꽃이 피었다 지고 여름엔 배롱나무 붉은 꽃이 피었다가 졌다. 내장산엔 단풍구경에 나선 이들로 북적였다. 우리를 둘러싼 큰 테두리인 정치의 지각 변동이 어느 해보다 커졌다. 한밤중 계엄으로 나라가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졌지만 곧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진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

내 소소한 일상에 눈에 띠는 변화는 없었다. 새벽에 고양이들 밥그릇에 사료를 채워준 뒤 나도 유기농 우유를 마시고 아무도 깨지 않은 새벽의 고요 속에서 책을 읽었다. 나는 고요가 사라진 세계에서는 누구도 제 행복을 빛는 게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사람들은 과잉의 정보들이 만드는 소음 속에서 제 불행을 제조해내는데 열을 올린다. 고요가 삶의 평화를 빛는 유일한 조건이

라면 ‘정보는 그 자체로 소음’(한병철)인 깨닭이다. 그런 깨닭에 나는 고요를 사랑한다.

동네 소택지에는 들에 자생하는 깨마중이 자라나 까만 열매를 맺었다.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 깨마중 열매를 바라보았는데, 어린 시절 이후 깨마중 열매를 본 게 신기했다. 부지런한 이들은 소택지에 뒷밭을 만들어 고구마와 감자를 심거나 토란이나 땅콩 같은 뿌리식물을 심어 수확을 했다. 도시에 나와 살게 된 이후 종달새 노래를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것은 쓸쓸한 일이었다. 지척인 고향으로 돌아가리란 기대는 난망한 일이 되었다. 우리 마음 깊은데 자리한 고향은 사라지고 그것은 상상의 자리부도에만 존재할 테다.

올해 유독 폭우가 잦아 여기저기에서 물난리를 겪었는데, 예외적으로 강릉은 오랜 가뭄으로 저수지가 말라붙어 비상급수가 실시되었다. 올해는 결혼이 늘고 신생아 수도 늘었다고 한다. 인구 소멸을 걱정하는 나라로서는 꼭 다행한 일이다. 다들 AI의 광풍 속에서 혁신의 시대가 올 거라고 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혁신일까? 글로벌 금융과 상품 시장은 더 커지고, 무역은 자국 우선주의와 관세 장벽으로 새 판이 짜이는 게 불가피했다. 소상공인들은 불황에 한숨을 내쉬고 문 닫는 가게들이 많았다.

어떤 이들이 병상에서 한 해를 보냈다. 시름시름 앓다가 건강을 되찾은 이가 있는가 하면 숨을 거둔 이도 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죽고 사는 건 인간의 의지

밖의 일인 깨닭이다. 지난에 처했으면서도 늘름하던 한 시인은 죽기 전 자식들에게 이런 시를 남겼다. ‘내 가난한 아들들아,/가난함에 행여 주눅 들지 말라./사람은 우한에서 살고 안락에서 죽는 것./백금 도가니에 넣어 단련할수록 훌륭한 보검이 된다’. (김관식 ‘병상록’) 지난에 주눅들지 말라! 우리를 일으키는 건 안락이 아니라 우한이다. 불의 단련 속에서 보검이 나오고, 시련의 담금질에서 삶은 단단해진다. 등이 월 정도로 사는 게 벼거울 때 이 삿구를 익으며 힘을 낸다.

무디위에 지쳐 낮잠만 자던 고양이들은 가을이 오자식탐을 부리더니 삶이 울렸다. 늦가을 오후, 상처한 고교 동창이 세상을 뜯어내를 향한 그리움을 날과 올로 엮어 시집을 묶었다고 찾아왔다.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고 헤어졌다. 비전향장기수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올해 시 몇 편을 내놓고 책 두어 권을 더 썼다. 날마다 나서는 산책에서 기쁨을 누리고, 새 책을 꾸역꾸역 읽는데서 보람을 찾았다. 선달에는 수술을 하고 입원해 링거 줄을 여려 가닥 매달고 있다가 퇴원했다. 언제 가봐도 병원에는 아픈 사람들이 넘쳐난다.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올해도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가장 밝은 빛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나오고, 오늘은 내일의 가능성에서 더욱 빛난다. 한 해가 저무는 지금, 내 안에 일렁이는 설렘과 희망은 곧 누리에 충만할 새해 첫 해의 무량한 빛 때문이라.

## 종교칼럼

황성호  
신부  
광주가톨릭 사회복지회 부국장

심리학자 최인철 교수는 저서 ‘커넥티드(Connected)’를 통해 인간의 행복은 ‘누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역설한다. 인간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를 확장하고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학적 통찰은 가톨릭 신앙의 핵심인 ‘친교(Communio)’의 영성과 깊은 궤를 같이한다. 신앙 안에서 연결된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친목을 넘어, 그리스도를 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의 삶에 참여하는 신비로운 사건이다.

무엇을 연결했느냐에 따라 전국과 지역이 결정되는 것은 아닐까? 온라인에서 본 글이다. “지역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지역이 시작됩니다.”라는 말이다. 이는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며 그 상대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상황이 전국과 지역을 오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내면의 상태는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인데 안에 있는 것으로 세상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 그런데 안에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을 끼니며 살아가지만, 내면

## 지옥의 문턱에서 천국을 짓는 사람들

에 악하고 나쁜 것이 담겨 있다면 또 그렇게 악하고 나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마음속에 미움과 배타성을 품으면 세상은 고립된 지역이 될 수 있지만, 사랑과 환대의 마음은 비록 삶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더라도 연결의 기적이 일어나면서 공동선과 보조성과 연대성으로 서로가 존중할 것이다.

결국 전국과 지역의 경계는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연결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닐까? 가톨릭 교회는 세상 속에 공존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한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가톨릭 사회교리의 핵심이다. 가난한 이들, 길 위의 노숙인, 제도 밖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민들, 신체적·사회적 장벽에 갇힌 장애인, 그리고 고독 속에 잊혀가는 청년들과 독거 어르신과의 연결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가톨릭 교회가 이들을 놓치는 순간, 교회는 존재의 정체성을 잃게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몸소 가장 낮은 곳에서 소외된 이들과 당신의 삶을 연결하려고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에 ‘참된 행복은 나만의 안락한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연결고리를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연결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두 가지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자아의 진정한 확장이다. 최인철 교수가 말한 ‘자기 확장’은 나보다 잘나고 화려한 사람들과의 연결

만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외면하고 싶었던 고통의 현장과 연결될 때 우리의 인격은 비로소 한계를 깨고 성장한다. 고통받는 타자의 얼굴에서 나의 나약함을 발견하고 그를 품어 안을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성숙해진다.

둘째, 가톨릭 사회교리 기본 원칙인 ‘공동선’을 향한 연대이다. 사회적 약자들과의 연결은 패편화된 현대 사회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다. 노숙인이나 이주민을 ‘남’으로 치부하지 않고 ‘우리’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사회적 안전망은 견고해지며 그 혜택은 결국 우리 모두, 곧 나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들과 삶을 공유하는 행위는 지역의 문턱을 허물고 이 땅에 천국의 모형을 짓는 거룩한 작업이다.

선택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다.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듯 우리 마음 속에 ‘현대의 마음’이 자리 잡을 때 세상과의 연결은 아름다워진다. 행복은 결코 혼자서 생취하는 전유물이 아니다. 누구와 함께 걷고 누구의 손을 잡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온도는 달라진다. 가톨릭 신앙인들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들과 연결될 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느님과 연결될 수 있다는 역설을 살피고 보여주어야 한다. 미움 대신 사랑을, 고립 대신 연결을 선택하는 결단이야말로 오늘날 이 사회가 잊어버린 참된 행복을 되찾는 유일한 열쇠일 것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자신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래서 행복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자.

## 기고

임광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과장

연말 방송과 신문 지면에 각종 기부와 연탄·김장 봉사활동 등 훈훈한 소식들이 줄을 잇고 있다. 올 한 해에도 광주전남 17만명이 소리나지 않고 조용히 따뜻한 기부(Donation)에 동참하고 있다. 바로 가장 따뜻한 36.5도의 혈액 기부 ‘현혈(Blood Donation)’이다.

기부자가 줄어들면 수혜자에게 선물이 고루 돌아갈 수록 최근 혈액 재고가 보건복지부 적정 기준치인 5일분 미만 상태로 저지어 수혈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다. 혈액원 공급팀에서는 혈액수급 위기단계 허향에 대비하여 병원들이 요청한 혈액에 비해 제한된 혈액을 출고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주 서울과 광주 지인 2명으로부터 주변 분들에게 요청해서 저정현혈을 도와 달라는 전화를 받기도 하였다.

혈액부족 현상은 지난 10년까지 만해도 학생들의 동계 및 하계 방학 기간인 1·3월, 7월말~8월 기간에 집중되거나 특별히 신종플루 메르스 등 전염병 대유행 기간에만 한정되었다. 그러나 혈액 부족이 최근에는 동하철 기이외에도 이전보다 훨씬 더 자주 장기간 일어나고 있다. 최근 빅데이터를 이용해 11월 중순 이후 전국 혈액 재고가 안정적일 것으로 예측했지만 혈액은 사람 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예측이 벗어났다.

## 365일 필요한 36.5도의 가장 따뜻한 선물

장기적 관점에서는 저속노화 전문가인 서울아산병원 정희원 교수와 인구통계학자인 고려대 김오석 교수의 공동 논문 ‘미래의 혈액 부채(負債)가 몰려온다’에 따르면 앞으로 20년간 현혈자는 35.5% 감소하지만 수혈자는 29.5% 증가한다고 예측한다. 즉 20년 뒤에는 수혈 필요 환자 두 명 중 한 명 정도만 혈액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혈액부족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의 영향이다. 현혈버스가 고등학교로 찾아가서 만 16세가 된 고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체현혈을 실시해보면 학생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몸소 느낀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올해 24.7명으로 10년 전 34.0명에 비해 약 10명 가까이 줄어들었다.

또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현혈자를 모집하는 경우 10년 전에는 학급수의 절반 가까이 또는 학급 전체가 현혈 지원을 한 경우도 많았지만 최근 한 학교에 한 두 학급 정도는 현혈 지원자가 단 1명도 없는 경우도 꽤 많다. 청소년들에게 간접한 말로 현혈 참여 호소를 하여도 마음과 귀가 열리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미국도 제2차 세계 대전 및 한국전쟁을 겪으며 대대적인 수혈 증가 속에 국민적인 현혈 동참 운동으로 전후 세대들이 높은 현혈 참여를 보였다. 현재는 앞선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대체하여 현혈에 꾸준히 참여할 젊은 세대들이 부족하다고 한다. 미국적십자사 및 민간 혈액은행들은 젊은층 및 증가하는 이민자 그룹 대상 현혈자 모집 및 홍보를 주요 추진 과제로 삼고 있다.

광주전남지사의 경우 과거 가장 많은 현혈자를 모집했

을 때는 1998년에서 2001년 기간이다. 1997년 말 IMF 한파 기간 중 전국민 금모으기 운동에 외국으로부터 혈액수입을 줄이자는 현혈운동 또한 활발히 이루어져 1998년 광주전남혈액원에서는 처음으로 20만명의 현혈자를 모집하였으며 2001년에는 25만2891명을 기록하여 아직까지 깨어지지 않고 있다. 당시 현혈에 동참하던 10대, 20대였던 분들이 현재까지 꾸준히 현혈에 동참하여 40대 이상 현혈자 및 회사원 등 직장인들의 현혈 비율이 2025년 현재 2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최근 광주지역의 이명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 광역시교육청 현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10월 24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의안 심사보고서에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현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청소년기부터 형성되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현혈 참여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나눔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이슈가 된 ‘소년이 온다’의 배경지인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 11호인 옛 광주적십자병원 등에서 총상 환자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현혈에 동참한 411명의 현혈자들과 주먹밥을 나누었던 시민들의 ‘연대와 나눔’의 역사와 정신이 우리 지역 공동체 안에 숨을 쉬고 있다.

저출산 및 고령화 확산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워지는 요즘 광주광역시교육청 현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모멘텀이 되어 ‘연대와 나눔’이란 가치와 유산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져 36.5도의 따뜻한 현혈과 물적·인적 기부가 365일 부족하지 않는 온기 있는 공동체가 더욱 견고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 社說

## 통합 부결 목포대·순천대…차분하게 설득을

통합 의과대 출범을 전제로 한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이 순천대 학생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 23일 실시한 통합 찬반 투표에서 순천대 학생 60.7%가 반대해 일단 좌초 위기를 맞았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학생, 교원, 직원·조교 등 3개 직역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해 3개 직역 모두 찬성률이 50%를 넘을 경우 통합하기로 했는데 순천대 학생들의 범위를 넘지 못했다.

통합 무산에 대한 원인에 대해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온다. 김영록 전남지사의 행정면의적 정책의 결과라는 진보당 전남도당의 지적도 일리가 있다. 전남도는 두 대학의 통합으로 출범하게 될 국립 전남의대 설립에만 집중한 나머지 대학 구성원과의 소통과 민주적 숙의 과정을 생략한 채 속도전을 벌인 것이 사실이다. 얼마 전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만나 2027년 국립 전남의대가 정원 100명 이상으로 출범한다고 발표했다가 과도한 언론 플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통합 대학 교명에 순천대 학생들이 반감을 가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처음 거론된 ‘김대중대’는 물론 ‘전라국립대’와 ‘전남국립연합대’도 지역색이 너무 강하다며 반대하는 학생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어쨌든 통합 추진 과정에서 순천대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꼈는데도 추진 주체들이 이를 개선하지 못해 자초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통합이 암초에 부딪혔지만 마지막 기회는 살아있다. 두 대학의 통합을 심사하는 ‘국립대 통폐합심사위원회’의 결정 기한이 1월 13일인 만큼 기간 안에 재투표 등으로 불씨를 살려야 한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30년이 넘는 전남의 숙원사업이다. 지역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은 물론이거나 두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통합은 성사돼야 한다. 전남도와 두 대학 집행부 등 추진 주체들은 보다 세심하면서도 차분하게 학생들을 설득해 결과물은 내놓아야 한다.

## 청년들 ‘탈 광주’ 부르는 일자리 ‘미스 매치’

광주지역 청년들의 ‘탈 광주’ 현상의 근본 원인은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개선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다.

최근 나온 두 가지 지표는 이런 현상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광주시가 내놓은 ‘2025 광주 일자리 인식실태조사’는 고용시장의 미스매치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취업을 희망하는 19~34세 청년층의 절반 가량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공기업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고 월급도 최소 300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지역 기업 상당수가 200만원대 월급을 제시하고 있어 구직자의 눈높이와 맞지 않다.

지역 산업 구조가 아직도 제조업(13.9%)과 도소매업(12.0%) 등 전통업종 위주다보니 고액 연봉 일자리가 드물 수밖에 없다. 그렇다보니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는 청년들이 많고 이들의 63.9%가 아직

을 희망할 정도로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이 높다.

광주경제총협회가 조선대 재학생 3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취업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도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고향을 떠나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74%의 학생들이 “일자리가 있으면 광주에 취업하고 싶다”고 답했는데 전공 관련 일자리 부족과 낮은 급여가 ‘탈 광주’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광주는 첨단산업인 인공지능(AI)과 미래 모빌리티를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방향은 맞지만 관련 대기업이 터를 잡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단기 대책 마련도 절실히다.

대학생이 당장 원하는 현장 실무 중심 교육과 기업 맞춤형 프로젝트를 마련해야 한다. 광주시를 중심으로 대학, 기업 등 지역사회가 네트워킹을 강화해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 無等鼓

깊고 진한 단맛의 곶감은 계절의 풍미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맑았던 감이 시간이 지나